

환경 친화적, 여성주의적 대동제를 만들어 봅시다.

발신 ; 자치단위 연석회의 (가)
수신 ; 확운위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남 모두가 즐겁고 하나되는 대동제를 위한 제안

118주년 무악 대동제입니다. 각 과반에서 대동제를 맞이하여 즐거운 대동제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연세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무악 대동제는 광주민중항쟁을 기리고 연세인 모두가 하나되어 즐거운 한판 축제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축제를 즐기는 과정에서도 역시 성폭력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성폭력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접촉이나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적인 상황이나 분위기에서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된다면 그러한 문화 역시 하나의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나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은 여성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이라도 남성중심적인 분위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즐겁지 않다면, 그 역시 피해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못 마시는데도 "남자라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지"라는 말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대동제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은 서로가 즐겁게 친해지기 위해서 마시는 것인 만큼 억지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거나 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주의적 시각이라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불편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성주의자'입니다. 우리 과반, 동아리의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여남 모두에게 즐거운 대동제를 만들어봅시다!

여남 모두에게 즐거운 대동제 만들기

- [1] 술을 마실 때에는 강권하지 않는다.
- [2]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3]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는다.
- [4] 연대주점을 준비할 때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 [5]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 [6] 음란 가요나 정력가, 마초맨을 부르지 않는다.
- [7] FM을 집단적인 분위기에서 강요하지 않는다.
- [8] 과도한 응원이나 놀이로 물건을 부수거나 다치는 등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 [9]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 각 반의 실정에 맞게 토론을 해보고 내규를 재구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